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요한 신학, 20 차 , 구원, 보존, 구원 이미 그리고 아직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요한 신학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A.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20, 구원, 유지, 보존. 구원은 이미 그리고 아직 아닙니다.

요한 신학에 대한 마지막 강의를 위해 주님을 바라보자.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켜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당신의 봉사에 사용하시고,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다 주시는 당신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당신 앞에 절하고, 당신께 영광을 돌리고, 다시 가르쳐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이번 구원은 지켜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켜지고, 보존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여러 번 보았는데, 적어도 한 번은 읽어야 할 것 같고, 그 부분을 강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37,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자가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마다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밀어내지 아니하시며, 그의 가족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그에게 온 후에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니라, 요한복음 6장 39절, 그가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함이니라.

예수께서는 택함받은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시지만 마지막 날에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 언어는 중성 it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단체 언어입니다. 40절에서, 이것은 내 아버지의 뜻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지금 영생을 얻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일으키리라.

그러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더 완전한 성경적 설명을 드리자면, 보존은 삼위일체, 곧 성부, 성자, 성령의 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성자 만 이 우리를 지키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요한복음 10:27-30, 우리는 이미 충분히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릅니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줍니다. 토마스 슈라이너는 크리스토퍼 모건의 B&H 브라우만과 홀먼 시리즈인 Theology for the People of God의 일부인 구원에 관한 책에서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슈라이너는 강조했고, 저는 이전에 충분히 강조하지 않았지만, 그는 저에게 영원한 삶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보존의 단어입니다. 그것은 결코 끝나지 않는 삶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영원한 삶을 주고,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영원한 안전, 양들의 보존, 그리고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지 못할 것이라는 강력한 단언적 진술. 그는 우리를 그의 손에서 빼앗으려는 작은 시도를 덮기 위해 강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오, 맞아요, 하지만 저는 그의 손에서 저를 빼앗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그의 손에서 자신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들을 내게 주신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들의 손 안에 있고, 우리는 아버지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안전하게 지키는 신성한 일에서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이것들을 보지 않았으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예수께서 여러 번 위로의 말씀을 주시며, 그분이 기도하는 그의 백성들이 마침내 구원받을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십니다. 요한복음 17:11, 12.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다. 다시 거기에 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고, 십자가로 향하고 있지만, 그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의 계획을 성취하는 데 매우 단호하고 집중해서, 실제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있는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본다.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없지만,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께로 갑니다, 성부님. 글썄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아직 거기에 없지만, 그는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도된 행동과 성취된 행동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당신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십시오. 이름은 그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것들을 당신 자신 안에 간직하십시오. 당신의 힘으로 그것들을 간직하십시오. 당신이 나에게 주신 당신의 이름,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그들을 지켜주세요, 아버지.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보존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나는 당신이 내게 주신 당신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습니다. 나는 그들을 지켰고, 멸망의 아들을 제외하고는 그들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외는 규칙을 증명합니다.

Kostenberger의 *The Theology of John's Gospel and Letters* 에서 그가 제 결론에 동의한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 유다는 결코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결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을 받지 못했고 그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구원을 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12장에서 예수가 기름부음을 받는 부분에서 유다는 반대합니다.

이 돈, 이 향유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야 했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어야 했다. 열두, 다섯.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그는 도둑이고 돈가방을 맡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

그는 스스로를 도우곤 했습니다. 점진적 불완전입니다. 이것은 그의 습관, 관습,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도둑질하고 회개하는 도둑이 아닙니다. 심지어 반복적으로 도둑질하는 것은 그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그는 마태가 전직 세리였기 때문에 은밀하게 도둑질했습니다.

마태는 돈가방을 지키는 사람이 도둑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유다를 목졸라 죽였거나 예루살렘 정신병원에 갔을 것입니다. 유다는 결코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역할을 했지만,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제자 중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7, 15. 아버지, 저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구하지 아니하옵나이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되, 그들을 악한 자로부터 지켜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사탄은 사탄, 마귀,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통치자, 악한 자라고 불린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악한 자로부터 지켜 주시기를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24절에서 또 다른 그런 기도를 봅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것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긍정적인 것에 대한 강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늘에서

영광 가운데 아버지와 함께 돌아가셔서 세상 창조 전에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게 주신 영광을 보신다고 상상하십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백성이 하늘에 가서 예수님과 아버지와 함께 하기를 기도하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그 기도를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은 보존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그의 백성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예수님과 아버지는 양들을 안전하게 지키십니다, 요한복음 10장.

대제사장의 세 번의 기도에는 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최후의 구원, 유지, 보존을 위한 기도가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은 이미와 아직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종말론적 진리일 것입니다.

구약성경의 위대한 예언들은 부분적으로는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끝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예언들은 가장 충만하고 최종적인 의미로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것을 보았지만 아직은 두 가지 시간 속담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마리아의 그리심이나 예루살렘의 시온 산에서 예배하지 않을 때가 오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에서 그들은 그들이 있던 곳에서 예배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었고, 사마리아인 예배는 처음부터 배교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때가 다가왔고, 지금 여기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들이 사마리아 여인이 하듯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를 예배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적 말씀은 이미와 아직 아님을 가리킵니다. 현재 실현된 성취는 여전히 더 완전히 실현될 성취입니다.

다른 하나는 5장에 있습니다. 시간이 오고 있으며, 죽은 자들이 요한의 말씀의 의미를 요약하기 위해 재생될 때가 지금입니다. 시간이 오고

있으며,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인자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지금이 아닙니다.

마지막 것들에 대한 네 가지 진실은 이미와 아직입니다. 구원과 심판, 부활, 재림, 영광, 구원과 심판. 우리는 요한복음 3:17과 18을 여러 번 했습니다.

요한복음 3:16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제가 조금 망친 것 같아요. 좋지 않아요, 전혀 좋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정죄하기 위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정죄받지 아니하나니. 이제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미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느니라.

구원과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따라 존재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정죄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도 있고, 거부하는 사람은 정죄받고 정죄받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그 후자의 판결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바뀔 수 있습니다.

구원과 심판은 현재에 있으며, 물론 가장 충만한 의미로 존재합니다. 부활한 신자들을 위한 지옥 과 새 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3:17과 18은 아직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25는 적어도 영생의 아직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습니다. 요한복음 12:25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그것을 영생을 위하여 보존할 것입니다.

그 영원한 삶은 다음 세상에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미래적 언급이 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잃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아마도 맥락상 미래의 현재일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는 마지막 날과 그 이후에 그것을 잃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이 이미 있고 아직은 아니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활은 성취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24, 25 누구든지 내 말을 듣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로서 이미 영생을 얻었느니라. 그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한 시간이 다가오고, 지금은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듣는 자가 살게 될 성취된 언어입니다. 그것은 지금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적인 부활입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여러 번 말했듯이, 요한복음 5:28-29은 아직 미래의 부활이 아니라 육체적 부활에 대해 말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올 때가 온다.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이 맥락에서 정죄를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가 재림을 다루지 않은 것이다.

제 논제는 마지막 일의 모든 주요 측면이 성취되었고 더 큰 방식으로 성취될 것은 이미와 아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림의 이미 측면은 실제로 무시되고 있으며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끼워져 있습니다. 아직은 쉬운 일입니다. 마음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4:1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내 아버지 집에서나 많은 방에서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께서 천국을 묘사하심 예수께서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많은 방이 있는 천국의 저택으로 묘사하시고, 그 방 중 하나에 믿는 자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아직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이 모든 이미지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환영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는 우리를 그의 면전으로 영접하여 그와 함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문자 그대로의 하늘 집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는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고 그들이 자신의 매우 기쁜 임재 안에 있기를 바라는 문자 그대로의 하나님 아버지에게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 이미 존재하는 재림의 측면은 14:23에 있습니다. 사실, 아버지와 아들이 어떤 의미에서 오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
 이스가리옷이 아닌 유다 이 사람이 성경에 나와서 매우 기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가 이스가리옷의 아들인 유다와 혼동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 당신이 세상에는 아니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거하리라.

14 하나, 둘, 셋 예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아버지의 하늘 집에 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4:23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우리 마음과 삶 속에 바로 집에 계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고 내게 순종할 것이고 내 아버지는 그를 사랑할 것이고 우리 아버지와 아들은 그에게 와서 지금 그와 함께 거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림은 이미, 확실히 시대의 끝에 문자적이고 물리적인 재림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의 진정한 영적 교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자들은 DA 카슨의 책인 *The Difficult Doctrine of the Love of God*에서 이것을 일부 신자들에게만 하고 싶어합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지만, 저는 모든 신자에게 확실히 열려 있는 것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라는 초대이며, 그 결과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달콤한 교제이며, 그 교제는 그들이 와서 우리와 함께 거주하고, 우리와 함께 집을 짓는 언어로 전달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런던에서 온 스튜어트 캐시먼이라는 달콤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저는 스튜어트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훌륭한 학생이고,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어제나 그 전날에 그의 아내가 Facebook에 올린 성명으로 끝납니다. 스튜어트는 수년간 질병과 씨름했지만 항상 상냥한 태도를 보이며, 그녀는 말했습니다. 슬프게도, 제 사랑하는 남편이 돌아가셔서 그가 사랑했던 구세주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그 남자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사실입니다. 커버넌트 신학교에서 제 전 동료였던 데이비드 캘훈과 저는 함께 걸으며 즐거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그 연못 주변의 거위들을 보았고, 멀리서 약 2초를 주었고, 좋아요, 지금은 시선을 돌리고, 각자 거위가 몇 마리인지 추측했습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항상 우리가 추측한 것보다 더 많은 거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5마리 정도를 더 추가했고 여전히 너무 확신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즐거웠습니다. 어쨌든, 노인이 있었는데, 누가 말하고 있는지 보세요, 노인 힌두교도였습니다. 매우 세계적이고, 자유주의적인 힌두교도였고, 덧붙여 말하자면, 매우 친절했고, 그의 작은 개와 함께 있었는데, 그는 곧 죽을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의 친구가 되었고, 그와 주님에 대해 조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스튜어트 캐시먼은 그의 친구가 되었고, 불쾌하지 않으면서도 주님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저 놀라운 재능이었고, 그는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여 죄인을 사랑했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이 집처럼 느끼게 하는 능력,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따르는 것을 짐으로 삼는 신자들에게 특별한 교제를 약속하십니다. 따라서 저는 요한복음 14:23에서 이미 재림을 봅니다. 재림은 말하자면,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현존하고 교제하는 측면이며, 재림은 1절에서 3절까지는 문자 그대로 아직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4:3에서 예수께서 분명히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고 아직 받지 못한 구원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우리의 행로를 위해 영광을 살펴봅니다.

당신은 확실히 영광은 단지 미래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글쎄요, 영광은 주로 미래예요. 하지만 그게 몇 년 동안 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제 문제는 제가 항상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저는 우리가 여기서 바울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영광의 이미 있는 측면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그리고 우리 모두가 베일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한 단계의 영광에서 다른 단계의 영광으로 말입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바울은 가르쳤고 이 생각에 편견이 없는 모든 주석가들은 그가 믿는 자들이 지금 영광의 측면을 즐기고 있다고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경배할 때, 그들은 지금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영광의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성령이 역할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절의 끝에서, 그리고 저는 그것이 아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신클레어 퍼거슨은 성령에 관한 그의 책에서, 실제로 주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능적으로 동등해지고, 존재론적으로 혼동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성령과 기능적으로 동등해집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 점진적인 성화를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요한복음 17:22, 20절부터, 저는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말을 통해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는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나이다

그것은 이미 영광의 한 측면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 제자들은, 그렇게, 그렇게 투쟁하는 자들이고, 네 번째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마태 복음과 누가 복음에서, 예수께서 반복적으로 예언하셨듯이, 그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손에 넘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세 번이나 네 번이나,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들 중에서,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저에게 주신 영광을 저는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글쎄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함께 투쟁하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현재적이고 점진적인 고린도후서 3:18의 영광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 성경적 연합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으니, 이는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마지막 감사의 모든 주요 측면은 이미 부분적으로 성취되었고 아직 성취되지 않았으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끝이 올 때, 영광을 포함하여 더욱 크게 성취될 것입니다. 물론 24절은 최종적인 영광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당신께서 내게 주신 그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서 세상 창조 전에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믿는 자들이 결국 영광을 받게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그는 그들이 아버지와 아들의 바로 그 면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중간 영광인지 아니면 최종 영광과 합쳐지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은 확실히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이 요한 복음의 중요한 측면임을 다시 한 번 봅니다. 구약은 그것을 예언했습니다.

시간 말씀은 때때로 예배가 지역에 의존하지 않는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말씀과 함께 시간이 왔다고 말합니다(요한복음 4장), 죽은 자의 부활을 위한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말씀(요한복음 5장). 구원과 심판은 이미 그리스도와와의 관계에 근거하여 지금 당장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듣는 누군가는 주님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분명 여러분은 복음을 거듭거듭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그의 아들을 주신 우리 주 하나님께 반항하는 자들입니다. 만약 당신의 상황이 그렇다면, 우리는 당신이 죄에서 돌이키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대신하여 죽으셨고, 당신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으며,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당신에게도, 그리고 나에게도 행복한 날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요한 복음에 대한 이 강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 복음 메시지를 나누는 데 있어서 매우 명확하고 반복적입니다. 부활은 이미 재생에 있습니다. 아직은 실제 신체의 부활에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오심은 아버지와 아들이 오셔서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신자들의 삶에 거처를 마련하신다는 의미에서 이미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충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의 하늘 집으로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영광은 아무리 놀랍게 보이더라도 이미 어떤 의미에서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충만함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거나, 그분이 우리를 데려가서 그분과 함께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네 번째 복음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대한 강의를

마칩니다 . 아멘. 요한 신학에 대한 강의를 하는 로버트 A.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20, 구원, 보존, 구원입니다. 구원은 이미 있고 아직은 아닙니다.